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2021□ □□□□□□□□ 12□ □□ □□□□ □□
□□□.

■ □□□ PARK Kyungj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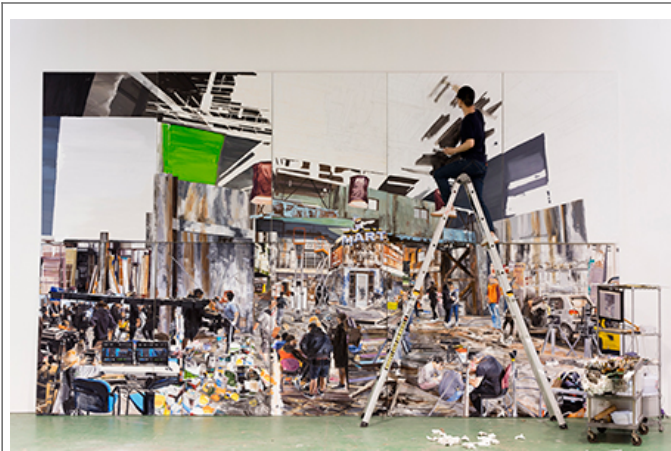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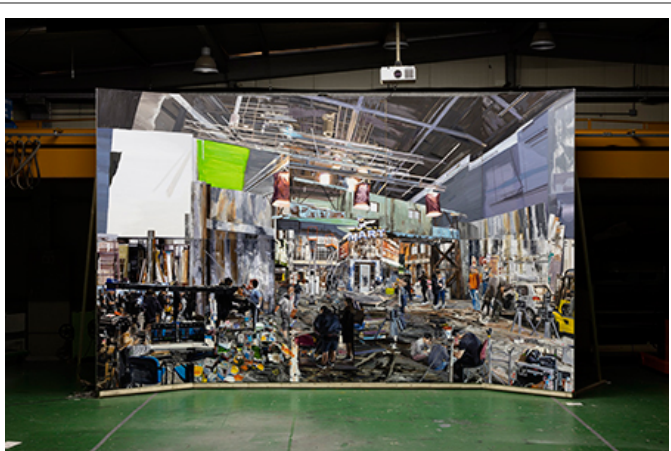
□ □□.

Q. □□□ □□□□ □□□ □□ □□□ □□□ □□ □□□ □□ □□ □□.

A. 20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pace> The Space of Space, 2017, 388x650cm,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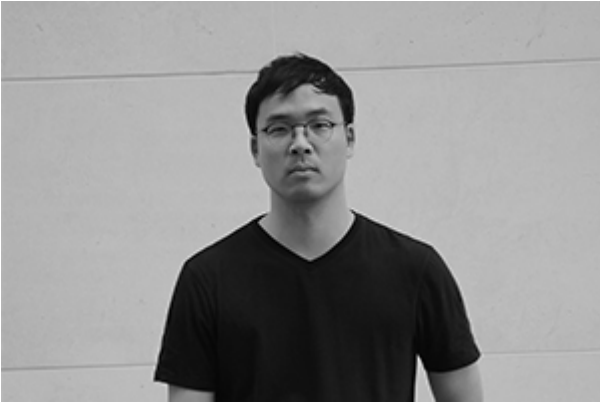


<space> The Space, 2017, 388x650cm, 2017

□□ □□□ □□□□ □□ '□□□ □□□'□ □□□□□□ □□. □□□□(□□□□□□□, □□, 2016), □□, □□(□□□ □□, □□, 2019), □□, □□□(□□□□□ □□□, □□, 2020)□□□ □□□ □□□□□ □□□ □□. □□□ □□, □□□□□ □□□ □□□ □□ '□'□ '□'□ □□ □□□□ □□□□ □□□□ □□□□ □□□□.

□□□□: [instagram.com/art_pkj](https://www.instagram.com/art_pk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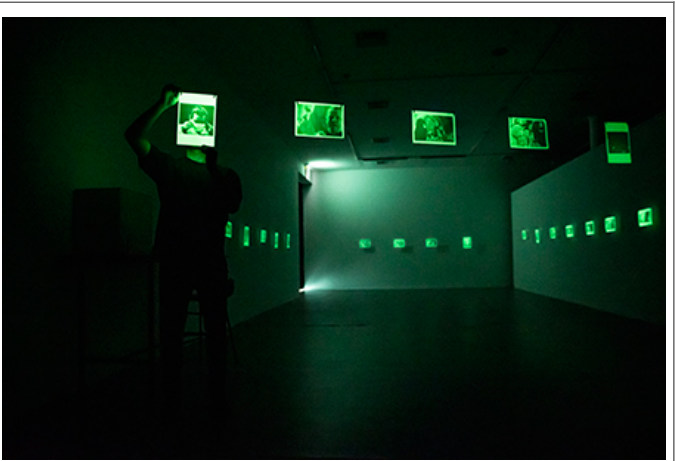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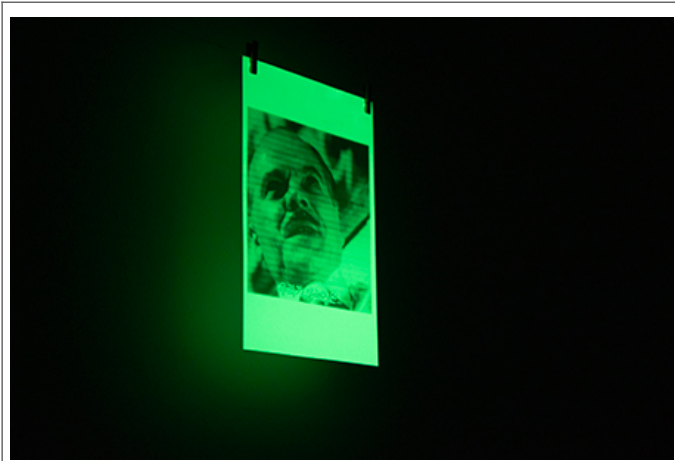
■ □□□ PARK Kwantaeck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text continues)

Q. ...

A. ... Spinoff from the facts (2019) ... UV ...



<프로젝트>, ... OHP ... 2020

<프로젝트> ... 2020

Q. ...

A. ... 2020 ... 1980~90 ... SF ...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100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nostalgia)의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메일: www.kwantaeck.com/

■ **이민** PARK Seong Jun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Q. 이러한 순간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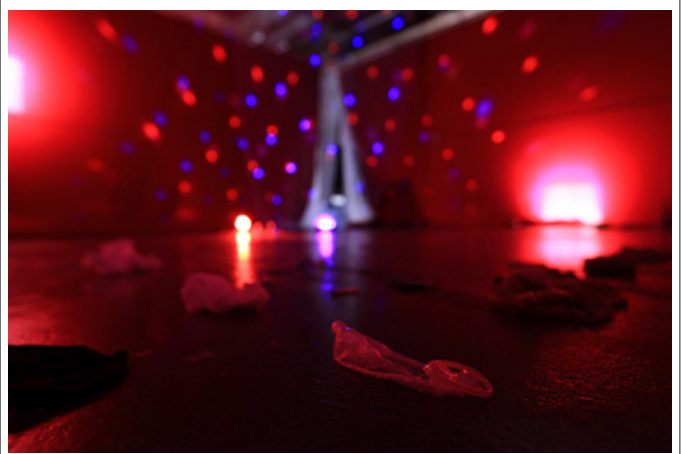
A.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이 풍경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닮았지만, 조금 더 이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풍경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닮았지만, 조금 더 이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MONTAGE II>, 박준준, 2016



<MONTAGE III>, 박준준, 2017

Q. 이 두 작품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A. 이 두 작품은 'MONTAGE'라는 제목을 공유하지만, 각각 다른 시각 언어를 사용하여 관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MONTAGE II'는 어둠 속에서 빛이 투영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공간의 깊이와 질감을 강조합니다. 반면 'MONTAGE III'는 강렬한 색상 대비를 통해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며, 빛의 움직임과 패턴을 통해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작품 모두 현대 미술의 추상적 표현 방식을 탐구하며, 관객의 시각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MONTAGE II'와 'MONTAGE III'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MONTAGE II'와 'MONTAGE III'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MONTAGE II'와 'MONTAGE III'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입니다.

웹사이트: parkjun.net/

* 이 작품은 박준준의 개인 작품입니다.